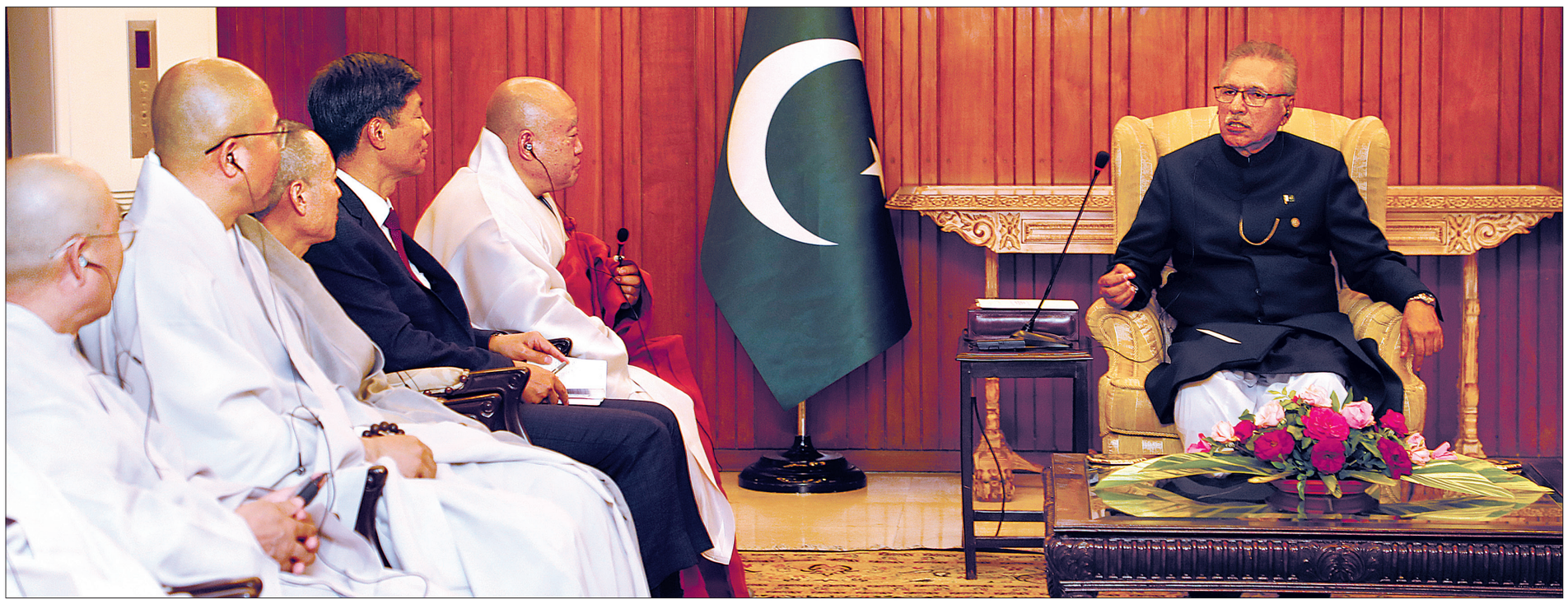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화엄경〉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으며
물에 비친 달과도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1일)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조계종 대표단 스님들과 불교 유적 보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위부터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파키스탄 한국대사,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 순.

싯다르타 고행상 韓전시 길 열리나

조계종 대표단, 11월 17~24일 파키스탄 국빈 방문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소장 고타마 싯다르타 고행상의 첫 한국 전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호르박물관이 소속된 펀자브주 주지사에 이어 국가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 역시 고행상의 한국 전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파키스탄 정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다. 조계종 사상 파키스탄 첫 국빈 방문에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10여 명,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장단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11월 17일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행상으로 유명한 라호르박물관에서 입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11월 21일 현재 순례를 진행 중인 조계종 대표단 파키스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싯다르타 고행상의 첫 한국 전시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 중인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리프 알비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를 잇달아 예방하고,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 한국 전시와 파키스탄 내 불교 포교당 건립 등의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임란 칸 총리는 흔쾌히 "OK. Sure"라고 답했다. 앞서 11월 17일 만난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 역시 조계종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관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총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이 세계 종교 평화와 불교 유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맙다. 간다라 불상을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란 칸 총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우리 정부는 이런 종교유적에 재정을 투자하고 보존·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저 역시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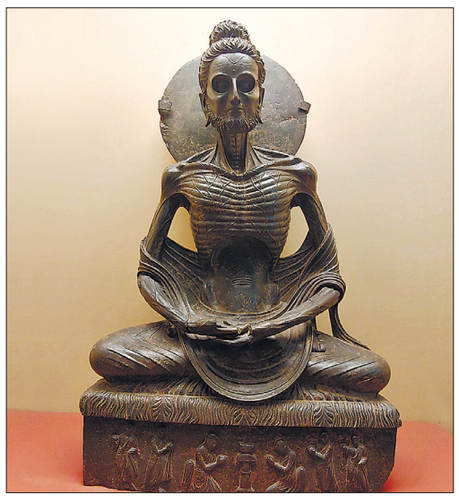
파키스탄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명예직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을 높인 대답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초드리 모하마드 사르와 주지사 역시 조계종 측에 "파키스탄의 어떤 불교 유물도 외국에 대여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 따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라호르에 불교유적이 많으니 양국이 원활하게 교류하도록 협력부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파키스탄 고행상은 2017년 예술의전당이 간다라 미술전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를 개최하면서 국내에 들여오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계종 대표단이 임란 칸 총리와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 등 핵심 정부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을 높인 만큼, 실무협의를 거치면 큰 어려움 없이 고행상이 국내서 전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고행상의 한국 전시 추진 방법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국립박물관과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고행상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불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된 싯다르타 고행상.

라호르博 고행상 참배·입재 후
주지사에게 한국 전시 제안해
대통령·총리도 긍정 의사 밝혀

파키스탄 내 韓포교당 건립 등
불교 관련 활동에 정부 의지 커
교류 실무협의 부서 구성될 수도

학계 전문가들도 싯다르타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환영했다. 파키스탄 간다라 유적을 발굴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간다라미술 양식의 고행상은 10여 점 내외인데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은 그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며 "처절한 정진이 느껴지는 고행상은 현대의 불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할지 화두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행상은 불교미술사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성보다. 이 같은 성보가 한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전시회는 환희심 넘치는 법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리 예방에서 고행상 전시 외에 파키스탄 내 불교 포교당 건립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러자 임란 칸 총리는 거부감을 표하지 않고 좋다는 입장을 표했다. 임란 칸 총리는 "탁실라와 스와트, 길기트 등 지역은 불교와 관련이 깊고, 현재 스와트는 땅을 팔 때마다 불교 유물이 나오고 있어 불교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다"며 재차 불교를 위해 노력하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이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것에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라도 파키스탄의 많은 곳을 순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현재 파키스탄이 한국에서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계종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대통령과 총리 외에도 소하일 마흐무드 외교부 장관, 하크 카다리 종교부 장관을 만나 파키스탄의 불교 유적 보존 노력에 공감하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의 물꼬를 트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조계종 대표단은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인 탁실라, 페르시아, 탁트히바이 등을 돌며 불교유적을 참배했다. 이어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로 알려진 초타라호르에서 기념식수와 명판 제막식을 진행한 뒤 11월 24일 귀국했다.

〈관련기사 A5〉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이선재·김종천 추천

진흥원 15일 최종 후보 의결
29일 불교방송 이사회서 선출



이선재



김종천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 후보로 이선재 前 KBS 보도본부장과 김종천 BBS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이 추천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불교진흥원)는 11월 15일 1, 2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5명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선재 前 본부장과 김종천 국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의결 직후 불교진흥원은 최종 추천 후보 2명을 (재)불교방송(이사장 종하)에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복수 후보로 추천된 이선재 前 본부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KBS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외교부장,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대표이사 등 KBS의 주요 요직에서 활약했다. 이 같은 공로로 한국방우회 바른말 보도상(1993년), 한국 참언론인 대상(2012년), 자랑스런 한양언론인상(2016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산학협력교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강사,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추천된 김종천 국장은 1961년생으로 영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방송에서 계속 봉직해온 내부 인사다. 1990년 불교방송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부산불교방송 보도팀장, 대구불교방송 방송부장·총괄국장 등을 거쳐 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9회 보리방송문화상 불교방송부문 기획상(2009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불교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불교방송 차기 사장으로 선상진 前 불교방송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을 복수추천했다. 하지만, 사장 추천 절차에 대한 공개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선 前 사장과 최 국장은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후 불교진흥원은 지난 8월 23일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을 공개 공모하기로 결정하고, 공모를 진행해 1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교방송을 이끌 차기 사장은 오는 11월 29일 불교방송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